

#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피해 인식의 매개효과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고구려대학교 아동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Chang-Seek Lee\*, Ji-Young Park\*\*, Ha-Young Jang\*\*\*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Dept. of Child and Elderly Welfare\*\*,  
Dept. of Lifelong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554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B군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반적 특성 중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인권피해인식은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이 완전매개하였다. 끝으로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인권피해인식, 자아존중감,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554 adolescents were surveyed at B county of Korea from September to November in 2015.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school level. And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s. But self-esteem was not. Seco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uman rights victimiz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ird,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was perfectly mediated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udents with lower self-esteem du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Self-esteem,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Received 25 August 2016, Revised 12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a Young Jang  
(Dept. of Lifelong Education)  
Email: besof@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학교폭력은 정부가 지정한 '4대악'의 하나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으로 학업성취도 저하, 등교거부,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2].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적지 않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욕설, 폭행,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 등의 피해 중 부정적 영향을 단 하나라도 당했던 학생들은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1.1%, 중학생이 10.0%, 고등학생이 4.2%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폭력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보면, 욕설이 33.9%, 금품갈취가 16.2%, 집단따돌림은 11.4% 순이었다[3]. 이러한 비율은 2006년의 17.3%, 2009년의 9.4%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이후엔 대략 10%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다[4]. 하지만 세계 주요 37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발생률 중 우리나라는 여전히 9위를 유지하고 있고[5] 더군다나 폭행유형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46]. 따라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련 연구는 학교폭력 분야, 방법론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기정 등의 [7]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김영미 [8]는 학교폭력은 자아존중감 외에 스트레스, 우울증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염동문 외[14]의 연구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만일, 학교폭력의 중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8].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면 학교폭력 피해는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권에 관한 그릇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을 연구했던 김도환[10]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피해의 한 형태로 집단따돌림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집단적으로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는 그 대상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우울, 불안 등의 심한 후유증으로 인한 등교포포,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었다[2,11].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따라서 본인의 인권피해에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끝으로 인권피해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일부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3],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인권의식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14]. 또한 최근, 인권보장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긍정적 권리인식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지만 부정적 권리인식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인권피해인식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권의식이 폭력피해 경험의 주요한 조절 변인임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권피해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폭력 피해 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확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은 폭력 피해 경험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 간의 직접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매개효과를 포함한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인권피해인식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

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인권을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에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청소년의 표집을 위하여 경상북도 B군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9개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편의표집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55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에 이루어졌다.

거주지별로 읍지역의 청소년이 190명(34.4%), 면지역이 363명(65.6%)으로 면지역이 많았고, 성별은 남학생이 306명(55.1%), 여학생이 248명(44.9%)으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 분포는 14-19세로, 평균 16.1세(SD=1.59)이었고, 학교급 분포를 보면 중학생이 284명(51.4%), 고등학생이 269명(48.6%)으로 비슷하였다. 끝으로, 가족형태는 양부모인 형태가 458명(83.1%)으로 다른 편부모 형태 51명(9.3%), 조손 가족, 시설 및 기타 42명(7.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2.2 연구도구

#### 2.2.1 자아존중감

Rosenberg[1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 5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83으로 나타났다.

#### 2.2.2 학교폭력 피해경험

Olweus[17]의 연구와 최근에 이루어진 학교폭력 실태 조사[3]를 참고하여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폭행, 언어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사이버폭력, 성폭력으로 세분화하였고 지난 1년간 각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 2.2.3 인권피해인식

자신의 주관적인 인권피해인식을 직접 응답하게 하였으며 “전혀 없다” 1점부터 “매우 많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 피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2.4 일반적 특성

학생의 성별, 학교급, 연령, 지역,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 2.3 자료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및 인권피해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2$  검정, t-test, ANOVA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매개효과 검정을 위하여 Baron과 Kenny[18]의 분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s test[19]를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 피해경험, 인권피해인식, 자아존중감 차이

#### 3.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은 108명으로 전체의 23.9%이었고 중복응답자는 43명(7.7%)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검정 결과 성별( $\chi^2=.000$ ,  $p>.05$ ), 가족형태별( $\chi^2=.820$ ,  $p>.05$ ), 지역별( $\chi^2=.630$ ,  $p>.05$ )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학교급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chi^2=4.958$ ,  $p<.05$ ).

####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피해인식 및 자아존중감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피해인식과 자아존중감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 인권피해인식( $t=-1.148$ ,  $p>.05$ )과 자아존중감( $t=1.404$ ,  $p>.05$ )은 차이가 없었고 학교급에 따라서는 인권피해인식( $t=-1.023$ ,  $p>.05$ )과 자아존중감은( $t=-.89$ ,  $p>.05$ )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인권피해인식( $F=.020, p>.05$ )과 자아존중감은( $F=.838, p>.05$ )은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인권피해인식( $t=-3.160, p<.01$ )은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 $t=.428, p>.05$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in recent one year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in recent one year			
	Yes	No	Total	
Gender	Male	59(24.0)	187(76.0)	246(100.0)
	Female	49(23.9)	156(76.1)	205(100.0)
	Total	108(23.9)	343(76.1)	451(100.0)
$\chi^2$ test $\chi^2=0.000, p=.984$				
School level	Middle school	66(28.3)	167(71.7)	233(100.0)
	High school	42(19.4)	175(80.6)	217(100.0)
	Total	108(24.0)	342(76.0)	450(100.0)
$\chi^2$ test $\chi^2=4.958, p=.026$				
Family form	Intact parent	90(24.1)	284(75.9)	374(100.0)
	Single parent	7(17.9)	32(82.1)	39(100.0)
	Grandparent rising, etc.	9(25.7)	26(74.3)	35(100.0)
	Total	106(23.7)	342(76.3)	448(100.0)
$\chi^2$ test $\chi^2=0.820, p=.664$				
Region	Town	33(21.7)	119(78.3)	152(100.0)
	Rural	75(25.1)	224(74.9)	299(100.0)
	Total	108(23.9)	343(76.1)	451(100.0)
$\chi^2$ test $\chi^2=0.630, p=.428$				

\*  $p<.05$

### 3.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상관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인식과 정적 상관관계( $r=.151, p<.01$ )를 보이고 있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 $r=-.109, p<.05$ )를 보였

다. 또한 인권피해인식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 $r=-.324, p<.01$ )를 보였고 상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main variables

	1	2	3
1.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1		
2.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151**	1	
3. Self-esteem	-.109*	-.324**	1
Mean (SD)	.19 (.40)	2.48 (.97)	3.69 (.58)

\* $p<.05$ . \*\* $p<.01$ .

### 3.3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족형태, 학교급,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성적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델1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매개변인인 인권피해인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148, p<.001$ ), 모델2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088, p<.05$ ). 모델3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인권피해인식이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beta=-.181, p<.001$ ), 2단계에서의 자아존중감 표준화계수 값( $\beta=-.088, p<.05$ )이 3단계에서 감소하였고 유의성이 없었다( $\beta=-.067, p>.05$ ). 따라서 청

<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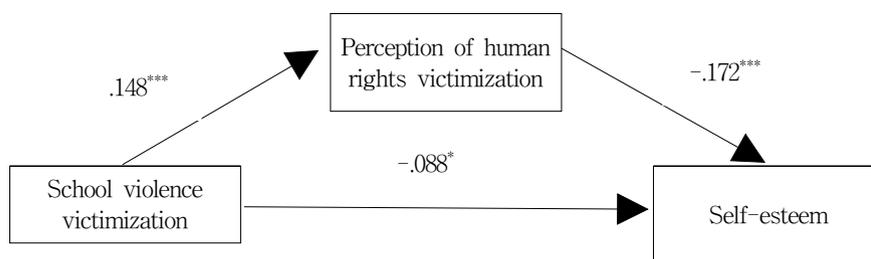
		Human rights victimization			Self-esteem	
		N	Mean(SD)	t, F, Duncan	N	Mean(SD) t, F, Duncan
Gender	Male	303	2.44(1.04)	-1.148	300	3.73( .59)
	Female	243	2.54( .88)		242	3.66( .52)
School level	Middle school	280	2.44( .99)	-1.023	278	3.69( .58)
	High school	265	2.52( .95)		263	3.70( .54)
Family form	Intact parent	451	2.48( .97)	.020	448	3.71( .55)
	Single parent	50	2.46( .89)		51	3.65( .64)
	Granparent rising, etc.	42	2.50(1.09)		40	3.61( .62)
Region	Town	184	2.30( .94)	-3.160**	187	3.71( .59)
	Rural	362	2.57( .97)		356	3.69( .54)

\*\*  $p<.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elf-esteem

DV		Model 1			Model 2			Model 3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Self-esteem			Self-esteem		
		B	$\beta$	SE	B	$\beta$	SE	B	$\beta$	SE
Control variables	Gender	.076	.038	.081	-.058	-.049	.045	-.049	-.042	.044
	Age	.119*	.199*	.051	-.061*	-.170*	.028	-.057*	-.159*	.028
	Family form	-.050	-.035	.059	.001	.001	.033	.001	.002	.032
	School level	-.320	-.164	.166	.252**	.215**	.092	.242**	.207**	.091
	School life satisfaction	-.314***	-.282***	.047	.287***	.431***	.026	.249***	.375***	.027
	Academic achievement	-.090	-.078	.048	.105***	.152***	.027	.102***	.148***	.026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370***	.148***	.103	-.130*	-.088*	.056	-.100	-.067	.057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108***	-.181***	.024
Constant		2.015*		.798	3.305***		.441	3.642***		.438
R <sup>2</sup>		.128			.246			.278		
F		11.055***			24.836***			25.211***		

\*p<.05. \*\*p<.01. \*\*\*p<.001.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완전매개가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Z=-2.81, p<.01),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3,20]. 따라서 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에 따른 조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인권피해인식은 읍·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그에 따른 낮은 삶의 질적 수준 때문으로[21], 낙후된 교육 환경 즉,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시설 및 인적 자원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22].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낮은 교육수준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실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 자아존중감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은 정적 상관관계,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높아진 인권피해인식과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 그리

고 자아존중감 손상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은 인권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며 이를 위해 꾸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3,24].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일회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이었고 학생들의 참여 활동도 캠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25].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행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Zhang 등은[23] 폭력 예방 활동이 학생, 교사, 가족, 지역사회 등 전 사회적 기반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폭력행위에 대한 교사의 분명한 태도와 신속한 개입은 학생들의 행위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26]. 그러므로 학교폭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일차적 조치와 예방적인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끝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인권피해인식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인권의식 척도는 다수 개발되었으나[27,28], 인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는 개발되지 않았다. 본 연구도 인권피해인식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분명 연구에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 REFERENCES

- [1] S. H. Lee, "Research for developing a Christian (Pastoral) counseling program model to prevent adolescent school violence",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Vol. 3, No. 1, pp.201-220, 2015.
- [2] S. G. Lee, "Effects of eco-systemic factors on peer violence at middle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19, No. 19, pp.141-170, 2005.
- [3] H. J. Park, & H. H. Lee, "A Study on present situation of violence in school and improvement progra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 [4] J. H. Park, "Prevalence and survey issues of school violenc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eachers and Education*, Vol. 30, No. 1, pp.17-38, 2012.
- [5] M. Akiba, & G. K. LeTendre, & D. P. Baker, & G. Brian, "Student victimization: National and school system effects on school violence in 37 n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9, No. 4, pp.829-854, 2002.
- [6] M. H. Lee, & J. Y. Lim, & S. D. Lee, & S. E. Oh, "Perception of teachers on school viol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174-185, 2009.
- [7] K. J. Lee, & Y. S. Kim,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How are they related to the subtypes of school violenc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6, No. 2, pp.57-77, 2015.
- [8] Y. M. Kim, "Victimiz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1, pp.470-481, 2016.
- [9] J. H. Park, "The effect of degree of respect for the human right of teachers and self-esteem of students on attitude toward 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Vol. 21, No. 2, pp.169-194, 2014.
- [10] D. H. Kim, "A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With focus on high school students in Kyonggi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2008.
- [11] C. S. Lee, & H. R. Son, & H. Y. Jang, "Effects of Self-esteem, Aggression and Violence Recogni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4, No. 7, pp.29-36, 2016.
- [12] E. H. Lee, "School factors and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ear of school attendance and judgment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 No. 3, pp.281-304, 2009.
- [13] J. Y. Moon, "A Single case study on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on an abused child's depression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5.
- [14] D. M. Yeum, & C. Y. Lim, & H. T. Jung, "Effects of adolescent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self-esteem: verification on mediated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1, No. 4, pp.401-423, 2015.
- [15] J.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rights guarante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2, No. 1, pp.35-59, 2010.
- [16]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D. Olweus, "The revised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Mimeo", Research Center for Health Promotion(HEMIL), 1996.
- [1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3, 1986.
- [19] M. E. Sobel,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 [20] J. C. Kim, & G. J. Seong, & H. K. Ch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parent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ternet addiction, and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0, No. 3, pp.69-97, 2014.
- [21] Y. S. Park, & Y. K. Park, & U. C. Kim, & K. H. Han,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among urban and rural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residence,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arent-child conflict and self-effica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2, No. 3, pp.5-41, 2011.
- [22] S. B. Oh, "The factor analysis of the different degrees of schooling achievement in inter-areas of middle and high schools: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schools and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migr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1, No. 2, pp.169-192, 2004.
- [23] L. Zhang, & W. D. Johnson, "Violence-related behaviors on school property among mississippi public high school students, 1993-2003",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5, No. 2, pp.67-71, 2005.
- [24] S. O. Shin & J. Park, "Converged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271-277, 2015.
- [25] M. K. J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curriculum and textbook of moral education for preventive education of school bullying & violence i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 38, No. 1, pp.143-164, 2007.
- [26] I. H. Jung & B. C. Lim, "Students of 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13-19, 2012.
- [27] I. R. Getz,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28] D. Wang,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understanding of children's righ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2015.

#### 이 창 식(Lee, Chang See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박 지 영(Park, Ji Young)**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문학사)
- 2005년 2월 : 한서대학교(차학석사)
- 2011년 2월 : 한서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노인복지
- E-Mail : jteddy@naver.com

**장 하 영(Jang, Ha Young)**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과 (이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